

박혁거세[朴赫居世]

신라의 건국 시조

기원전 69년 ~ 기원후 4년



경주 오름

/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(한국학중앙연구원) /

1 개요

신라를 건국한 임금이다. 신이한 탄생 설화를 지니고 있으며, 신라를 건국한 후 덕으로 다스리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.

2 탄생

혁거세의 탄생설화는 『삼국사기』신라본기와 『삼국유사』기이편에 실려 있다. 『삼국사기』신라본기에서 따르면 혁거세가 탄생하기 전부터 조선(朝鮮)의 유민들이 산곡 사이에 살면서 6촌(후에 6부로 발전)을 이루었는데, 그 중 돌산(突山) 고허촌(高墟村)의 촌장이었던 소벌공(蘇伐公)이 양산(楊山)의 나정(蘿井) 옆에서 말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보니 말은 사라지고 큰 알이 하나 있었다. 알에서는 갓난아이가 나왔는데, 그가 바로 혁거세이라는 내용이다. [관련자료](#)

『삼국유사』에 실린 탄생설화도 『삼국사기』와 유사하다. 다만 조금 다른 점도 보이는데, 『삼국사기』에서는 조선의 유민들이 6촌을 형성했다고 하였지만 『삼국유사』에서는 6촌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다고 한 것이나, [관련자료](#) 『삼국사기』에서는 소벌공이 우연히 알을 발견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『삼국유사』에서는 6촌의 촌장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울 일을 논의하다가 함께 알을 발견한 것으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. [관련자료](#) 또한 아이의 몸에서 광채가 나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의 혁거세(赫居世)라 하였다는 내용과 '불구내(弗矩內)'라는 다른 이름, 혁거세가 서술성모(西述聖母)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내용도 보인다.

[관련자료](#) 서술성모는 선도성모(仙桃聖母)라고도 하는데, 『삼국사기』의 편찬자인 김부식도 신라본기 경순왕조 말미에 쓴 사론에서 선도성모 설화를 언급하고 있다. [관련자료](#) 조선 시대 유학자들도 김부식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. 조선 시대 실학자인 안정복은 『동사강목(東史綱目)』에서 신라 건국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면서 혁거세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였다. [관련자료](#) 그러면서 별도로 건국 설화를 괴이한 이야기로 여겨 그 내용을 변증하기도 하였다. [관련자료](#)

그러나 고조선 유민들이 삼한 지역으로 남하해 왔다는 내용이나, 6촌이 신라 건국의 모체가 되었다는 내용 등 건국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신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.

3 즉위와 혼인